

높에 빠진 고용

경기침체에 줄폐업... 광주·전남 자영업자 지난달 1만9천명 ↓ 도소매·음식 종사자 역대 최저...제조업 취업자는 1만1천명 ↓

광주·전남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감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 구조가 나빠지면서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해 줄폐업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자영업자, 서민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지난달 15만명(전년동월 대비 5.4% 감소)으로 전년 15만9000명(전년동월 대비 5.4% 감소)을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올해 14만8000명(4월)까지 감소했다가 15만2000명(5월)까지 늘더니 지난달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다. 분기별로도 전년도 2분기(15만7000명)에 비해 4.1%(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바닥을 받쳐주는 서비스 일자리의 주력 분야지만 올 들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밑바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2년 9월(15만명)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4만1000명에 불과, 지난 2012년 10월(4만1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전남지역 자영업자도 지난달 28만7000명으로 1년 전(29만7000명)보다 3.4%(1만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다.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1월 이

후 가장 적다는 게 통계청 발표다. 1년 전(17만2000명)보다는 무려 15.2%(2만6000명) 급락했다. 1년 전에 비해 10.9%(1만8000명) 감소했던 지난달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커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종업원처럼 최저임금이 민감한 취약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하다.

◇주력업종 고용 창출력도 악화=고용 창출력이 큰 광주지역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1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같은 기간 12만명(5.9%) 줄었다. 광공업 취업자도 11만4000명으로 1년 전 12만1000명보다 6.3%(8000명) 감소했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6%(4000명) 감소했고 광공업 취업자(10만1000명)도 1년 전보다 4.4%(5000명)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

계 분석이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9.2%로 1년 전인 59.7%보다 0.5%포인트 감소했고 전남지역 고용률도 62.9%로 1년 전(63.1%)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통상 반대로 움직이던 제조업과 자영업 통계 수치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와서 창업한다든지 자영업으로 방향을 돌리던 구직자들이 경기 침체와 동종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아예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알'과 '구직'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광주지역 비경제 활동 인구도 지난달 49만명으로 1년 전(48만3000명)보다 7000명 늘었고 4월 46만9000명 5월 47만7000명 등으로 매일 증가세다.

한편, 광주지역 실업률은 지난달 3.3%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동일했고 전남 실업률은 2.6%로 1년 전(3.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0.62 (-13.54)	↓ 금리(국고채 3년) 2.05 (-0.04)
↓ 코스닥 804.78 (-8.41)	↑ 환율(USD) 1120.00 (+4.00)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운영제도 개선”

전기공사협 청원서 전달키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조덕승)는 12일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한전에 전달키로 했다.

전기공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최근 수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 유착 고리를 끊고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

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한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전기공사협회 청원서에는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 도급액 하향으로 협력업체 확대, 실적심사기준 완화로 실적을 거래하는 전기공사업체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협회 안팎에서는 조만간 한전 배전공사 입찰 지침이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 청원서 내용이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오는 25일까지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법인사업자(8만4000명)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35만7000명)는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해당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홈텍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

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와 목포시, 영암군·해남군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여름휴가 최고 인기 여행지는 '다낭'

티몬투어 7~8월 항공권 예약 분석...평균 5.9일 여행

베트남 여행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여름휴가 최대 인기 여행지로 다낭이 떠올랐다.

모바일 여행 예약 서비스 티몬투어는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의 항공권 예약을 분석한 결과 인기 여행지 1위가 베트남 다낭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1위를 차지하던 일본은 2위로 밀려났다.

2위 오사카, 3위 도쿄, 4위 괌, 5위 방콕, 6위 후쿠오카, 7위 세부, 8위 코타키나발루, 9위 타이베이, 10위 오키나와 순으로 나타났다.

7~8월의 평균 여행 기간은 5.9일로 지난해보다 평균 1.0일 길어졌다.

흔히 여행하는 '혼행족'은 평균 7.5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평균 6.8일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편 티몬투어가 올해 상반기 출발한 항공권 예약 17만 건을 분석한 결과 90%가 4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여행지 인기순위 1위는 오사카, 2위 후쿠오카, 3위 도쿄, 4위 다낭, 5위 괌 순으로 나타났다.

1~3위를 차지한 일본의 경우 여행뿐 아니라 출장이나 가족 방문 목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 다낭 편 항공권 예약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458% 급증했다. 다낭은 지난해 상반기 인기 여행지 10위에서 올해 상반기 4위로 올라섰다.

국내 여행사 16곳의 항공권 가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주는 티몬투어는 7월 한 달간 최대 15만원의 항공권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다문화교실 유익해요” 수강생 20명 전통문화 체험 호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0일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수강생 20여 명과 담양 삼지내마을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립50주년을 맞아 광주은행은 지난 6월 20일 개강한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 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다문화가정 4기 수강생들은 담양 삼지내마을을 방문해 부채와 대바구니를 만들고, 전통과자인 한과를 함께 만들어 한국의 정서를 몸소 체험했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후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주은행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생명, 반년째 보험금 지급 차일피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이달말 결정...한화·교보도 눈치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생명도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

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작년 11월 금융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민

원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이 될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수많은 다른 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이런 사례가 삼성생명에서만 5만5000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만 4300억원, 생보사 전체로는 최소 8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데

만도 두 달 넘게 끌었다. 입장 결정을 연장하고 또 연장에 올해 2월 2일에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도 보였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이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융원이 거듭 압박했지만 이들은 "삼성생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편안한착용감**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탄성GOOD! 흡습함 GOOD!** **이온, 실크, 케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욕각형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